



“21세기 미학주제 인간-자연의 조화”

‘성곡미술대상-2000
전시기획공모’ 대상

최 광 진



최광진씨(37).

올 하반기 미술계 최대 이슈였던 소정 변관식 화백의 ‘외금강 옥류천’의 진위논쟁을 제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소장파 미술평론가. 그가 다시 화단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쌍용그룹의 성곡미술관이 제정한 ‘성곡미술대상—2000년 전시기획공모’에서 영예의 대상(상금 700만원)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국내 미술관들이 자체 전시기획에 머물렀던데서 벗어나 전시기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새롭고 신선한 외부 기획자를 도입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서양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개체를 중시하다 결국 국 인간의 소외와 부조화를 낳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전체론적 우주관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끈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21세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미술에 빠져 살다보니 아직도 미혼인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로 병들고 휘청거리는 우리 화

단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한다.

최씨가 제출한 뉴 밀레니엄 전시기획안은 ‘생명의 그물’. 쟁쟁한 응모작 33개 중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그의 기획안은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체적 미학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미술양식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내년 8월 성곡미술관에서 열릴 전시에는 작품도 개체와 개체 사이의 연결에 주목하는 작가들, 결과

보다 과정,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관객참여에 의해 완성되는 유동적인 전시를 만들 생각.

“현대미술에서 작가나 작품 보다 전체적인 텍스트,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독창적인 기획전이 많아져야 한다”는 그는, 앞으로 많은 미술관과 화랑들이 전시기획 공모를 시도해서 재능있는 기획자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길 기대했다.

국내 최초의 미술비평학 박사 과정(홍익대) 중.

<이화순 기자 may@sportschosun.com>

국내 최초 미술비평학 박사 과정 수확중
한국적-주체적인 미술 양식 유도로 당선